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16	08. 23	08. 30
대 표 기 도	이예준 형제	윤미경 자매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이예준 형제	윤미경 자매	정해욱 형제

교회소식

8월의 축복 인사 :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는 8월 되세요!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선교 훈련 프로그램 - 27년도 선교 훈련을 위한 지원과 재정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4. 한국 방문 - 신기훈 형제(10일)
5.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최종열 성도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7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568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장래황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23 : 1 - 6(구p 818) (Pslam 23:1~6)	장래황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참된 안식의 목자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2027년 3월 중에 있을 단기선교 또는 성지순례를 위하여
5.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참된 안식의 목자

7,8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통해 쉼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휴식을 가집니다. 하지만 휴가를 다녀와도 마음의 염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휴식보다 영혼의 안식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참된 쉼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에게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된 평안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초장이 아니라 좋은 목자이듯,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돌보십니다.

3.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시며,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무게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의 신뢰를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은 언제였나요?
2. 나는 무엇을 통해 안식하려고 하나요?